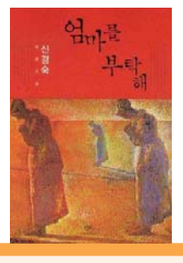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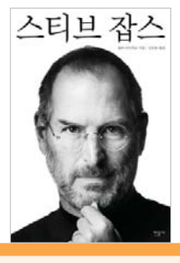




올 출판계 키워드 '위로와 공감' '도가니'

'기획회의'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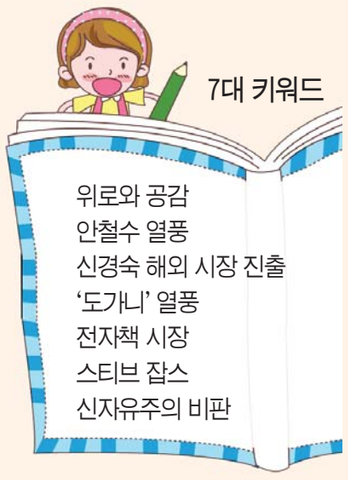
한 해에 팔린 책들을 들여다보면 사회 트렌드를 읽을 수 있다. 굳이 '베르테르 효과'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책이 인기를 끌면 그 책의 주제나 작가, 인물이나 이야기에서 파생된 '무슨무슨 열풍'이 불기 나름이다. 또 반대로, 출판계는 사회 현상을 신속하게 담아내는 책을 앞다퉈 출간하기도 한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가 펴내는 격주간 출판전문지 '기획회의'가 '2011 출판계 핵심 키워드' 일곱 개를 선정했다. 올 해를 대표하는 키워드는 위로와 공감, 안철수 열풍, 신경숙 해외 시장 진출, '도가니' 열풍, 전자책 시장, 스티브 잡스, 신자유주의 비판이었다.

먼저 '위로와 공감'은 올 최고의 베스트셀러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열풍에서 나온 키워드다. 우리 시대 청년들은 한 해 1000만원이 넘는 등록금을 내고 대학을 졸업하지만 태반이 직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처받은 젊은 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위로와 공감을 건네준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날개 돋친 듯 팔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출판마케팅연구소 한기호 소장은 "스펙을 쌓으라는 협박에 지쳐 있던 젊은 이들은 가르치려 들지 않는 친구이자 선배 같은 멘토(김난도)의 조언에 스펀지처럼 젖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안철수 열풍'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올 출판계 이슈였다. '안철수 밀어서 잠금해제' '닥치고 정치' 등 20, 30대의 고민에 공감하는 책들이 인기를 끌면서 정치권에도 큰 지각변동을 안겼다. 이들 책들은 '고소영'으로 상징되는 권력자들을 풍자하고 조롱하며, 안철수 열풍의 도화선을 마련했다.



시사평론가 민동기씨는 "비정규직의 고달픈 인생과 '알바인생'에 버거워하는 젊은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정책을 생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문학의 세계화 가능성을 엿본 '신경숙 해외 시장 진출'도 눈여겨봐야 할 키워드다. 지난 8일 미국 아마존닷컴이 선정·발표한 '2011 최고의 책' 목록에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가 포함돼 있는 등 이 책은 미국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또 독일과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등의 국가에서도 이 책의 출간을 준비하고 있다.

케이엘매니지먼트 이구용 대표는 "저자와 작품으로 표현되는 '핵심'과 역자와 편집자, 에이전트로 표현되는 '주변'이 원활히 소통하며 조화를 이룬 결과"로 봤다.

공지영의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한강의 '채식주의자', 편혜영의 '재와 빨강', 김애란의 '두근두근 내 인생' 등의 소설과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등도 해외 출간을 준비하는 등 한국 책의 해외 시장 진출은 2012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설 출간 후 영화화돼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도가니 열풍'과 아이폰의 확산으로 더욱 시장이 커진 '전자책 시장'도 2011년 출판계가 남긴 한 페이지로 기록됐다.

'도가니 열풍'은 '가시고기'가 아버지 열풍을 몰고 오고 '아침형 인간'이 사회적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를 떠올리게 할 정도로 '책의 파급력'을 보여줬다. 또 올 시장 규모가 300억원을 넘어선 전자책 시장도 우리 출판계가 놓쳐서는 안 될 변화로 손꼽혔다.

이 밖에 스티브 잡스의 사망으로 그의 전기와 관련 책이 봇물 터지듯 출간된 현상과 한미 FTA 체결로 '미국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등 신자유주의 비판을 담은 책들이 나온 것도 올 해 출판계의 큰 변화였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김난도 '아프니까 청춘이다'

인터파크도서 선정

올 최고의 베스트셀러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로 나타났다.

최근 인터넷서점 인터파크도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 말까지 판매된 도서를 바탕으로 '2011 출판계 결산' 자료를 발표했다.

집계 결과 마이클 샌델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2위를 기록했다. 이어 장하준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신경숙의 '엄마를 부탁해', 코이케 류노스케의 '생각 버리기 연습'이 3~5위를 차지했다.

또 올해 역시 영화·드라마의 원작들이 강세를 보여 황선미의 '마당을 나온 암탉', 공지영의 '도가니', 이정명의 '뿌리 깊은 나무', 김려령의 '완득이' 등이 사랑을 받았다.

하반기에는 '나는 꼼수다'의 열풍이 출판계에도 이어져 김어준의 '닥치고 정치', 김용민의 '나는 꼼수다 뒷담화', 정봉주의 '달려라 정봉주' 등 관련 도서가 인기를 얻기도 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 내정 단원들 반발

"프로합창단 경험 전무… 정식 지휘 전공 안했다"

"기량 뛰어나고 절차상 문제 없어… 번복은 없다"

광주시립합창단 신임 지휘자(예술감독) 내정을 놓고 단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29일 이어진(40) 현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장을 신임 지휘자로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임기만료 기간인 올해말까지 일단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도 겸직한다.

이 지휘자의 내정에 대해 단원들은 30일 광주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단원들은 탄원서에서 '정식적으로 지휘 전공을 하지 않고 프로 합창단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 선임된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광주시는 "내정자가 창작과 기획 능력이 뛰어나는 등 기량이 탁월하고 절차상 문제도 없기 때문에 내정을 번복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문예회관은 지난 22일로 구천 지휘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신임 지휘자 선정 작업에 착수했다.

광주시예술단 조례 제7조 '자격과 위촉'에 따르면 '예술감독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공개모집을 통해 적정한 사람의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5명 이내의 자문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규정돼 있다.

문예회관측은 특별전형을 채택, 5명의 후보를 자문위원회에 추천했다. 회관측은 공개 모집을 할 경우 유능한 인사들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내부 인력풀 등을 가동, 후보를 추천했고 특정 인물과 관련된 합창 인맥이 전형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온 시립예술단노조지부도 특별전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노조 역시 후보자를 추천했다. 29일 열린 자문위원회에는 시립예술단 총단장인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광주시 문화수도예술과장, 지역과 외지 음악인 3명 등 5명이 참석했다.

소년소녀합창단 지휘자가 프로성인 합창단을 이끌게 된 파격적인 인사에 지역문화계에서는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976년 창단된 광주시립합창단 지휘자를 거쳐간 사람은 석복룡·김연술·김동현·유병무·구천씨 등 5명이다.

문화계 인사 A씨는 "소년소녀합창단과 성인 합창단은 발성 등 모든 면에서 다른데 성인합창단 지휘 경험이 없는 지휘자가 영입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시립합창단원 대표는 "특별전형이라면 다양한 추천을 받아 연습지휘 등을 진행하는 등 투명한 과정을 거쳐 지휘자를 선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계 인사 B씨는 "지금까지 학연등에 얽혀 있던 지역 음악계 관행을 깨는 의미있는 인사로 받아들인다"며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바람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합창단 대표 7명은 이날 이병록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일 다시 만나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부시장은 "기량이 뛰어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결정을 번복할 이유는 없다"며 "내정자와 단원들이 서로를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을 갖고 무대에서 평가를 받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립합창단지휘자의 소년소녀합창단지휘자 겸직 역시 이번에 처음 불거진 사항으로 조례상에 규정이 없어 논란이 일것으로 보인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만덕산이 보인다'

강진만… 자연으로의 여정

김충호 개인전, 9~18일 강진 아트홀

강진만의 넉넉함과 만덕산의 고즈넉함이 한 폭의 풍경화에 담겼다. 서양화가 김충호씨가 오는 9일~18일 강진아트홀에서 개인전을 연다. 서울 화단에서 활동하다 30여년 만에 고향에 정착해 창작에 몰두하고 있는 그는 이번 전시에서 자연을 배우고 깨닫는 여정을 담은 작품을 선사한다.

앙상한 모습을 드러낸 채 겨울을 맞는 나무. 울부짖는 듯한 걷힌 구름과 싸늘한 하늘 아래 외로이 서 있는 섬,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폐선 등 강진의 풍광이 담겨 있는 작품들이다. 홍익대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2회의 개인전과 서울판화대전, 서울 현대미술제, 경기미술대전, 행주미술대전 등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문의 061-430-5760.

/중부취재본부=남철희기자 choul@

中 젠다이그룹 선친 빈, 광주시립미술관서 강연

광주시립미술관(관장 황영성)은 1일 오후 3시 상록전시관 세미나실에서 중국 상하이 젠다이그룹 문화개발 이사 선친 빈〈사진〉의 특별 강연을 연다.

이번 강연에서 선친 빈은 중국 현대 미술의 역사, 중국 미술시장의 경매와 최근 주요 중국현대미술작가 소개, 중국 미술 시장의 동향 등을 들려준다.

선친 빈은 듀얼런 현대미술관장과 젠다이 현대미술관장을 역임하는 등 중국의 떠오르는 현대미술경영인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미술상 운영위, 수상작가 10일까지 공모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송용)는 지역 젊은 작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제17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를 오는 10일까지 공모한다. 광주·전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30세 이상 45세 미만 작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는 최근 3년 이내에 제작한 작품 사진을 담은 포트폴리오 등을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사무처로 제출해야 한다.

17일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당선자를 결정하며, 상금은 본상 1000만원, 차석 2인에게 100만원씩 수여된다.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송필용·이준석·박종석·주재현·이이남·조성호·나명규·김숙빈·김도기·신창운·임병중·박현수·김진화 씨 등이 수상했다. 문의 010-3162-5949.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